

混迷經濟속의 酪農

감사 진 두 현

우리는 소값의 下落이 外國소의 輸入때문인 것으로만 생각하였다. 그러기에 輸入한 當局의 處事를 원망하였고 輸入만 안되면 소값은 回復되리라 믿었으며 우리의 副產物인 수송아지 값도 30萬원線을 最下限으로하여 다시 오를것을 바랐으나 오르는 것은 커녕 한층 떨어져 지금 20萬원 臺로 떨어지고만 있으니 답답하기만하다. 어찌하여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첫째, 시야를 돌려 國外 特히 美國, 日本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酪農이 全體經濟에서 어떤 狀態에 놓여 있는가를 알아보고 다음 우리 酪農인들이 해야될 일. 行政當局이 해주어야 할 일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레이건 美大統領이 “強大的 美國”이란 기치아래 軍備에 莫大한 돈을 쏟아넣기 때문에 무려 1,800億弗이란 財政赤字가 생기고 이것은 해가 갈수록 累增될 것으로 보이며, 年間貿易에서도 1,500億弗의 赤字를 안게 되었으며 弗貨價値를 높게 維持하고 金利 또한 높아 世界의 돈이 美國으로 모이게는 되었으나 富國이던 大美國이 一轉하여 債務國으로 變하였으며 1,200萬名으로 失業者가 늘고 破產者가 續出하게 되었다. 美國農業도 深刻한 狀態에 빠져있다. 大農家의 大規模 農事로서 全體生産量은 늘고있으나 中小農家は 全面的인 恐慌에 빠져있다. 美農務省의 調査에 따르면 1981~1984年 사이에 經營難의 農場 4萬이 競賣에 부쳐졌고 今年에는 15萬名이 破産, 土地에서 強制的으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한다. 아이오아州에서는 家族經營農民 11萬戶中 3割이 破産直前に 있다고 한다.

穀物價下落으로 옥수수나 콩이나 生産費를 밀두고 지으면 지을수록 赤字만 불어나는 “豊年飢饉”이 된다고 한다. 量的으로 豊作이니 만치 輸出을 해야하나 弗高로 輸出조차 안된다.

事態는 深刻하여 或者是 1930年代의 農業恐慌보다도 더 甚하다고 한다. 이러한 事態는 世界的인 供給過剩, 弗貨價値高에 依한 輸出競爭力 喪失에 레이건 政權의 新農業政策이 加重되어 作動했기 때문이다. 財政赤字 累積으로 農業에 支給된 190億弗의 補助金마저 제대로 못 주는 것이다. 이리하여 美國 全人口의 2.4%에 不過한 農民 그 農業人口의 10%도안되는 大農業만이 살아남아 10.5%의 利得을 올리고 있으나 大部分의 中小農業은 赤字내지 破綻에 直面하고 있음이 틀림없는 것이다. 無慈悲한 資本主義的 進行過程을 ยับ할수 있다. 한편 美日間의 貿易에 있어서 日本은 美國에 對하여 400億弗의 黒字를 갖게 되었다. 自動車 王國인 美國에 거꾸로 日本의 도요다, 닛산車가 逆輸入되고있을 뿐아니라 그밖의 工產品이 물밀듯이 美國으로 들어가게 되어 及其也 美國議會와 輿論으로 하여금 保護貿易主張을 일게하여 켈킨스法案이니 더몬드法案이 上程되어 시끄러운 것이다. 우리도 對美輸出에서는 84年度 36億弗의 黒字를 보고 있어 美國서는 우리를 第二의 日本으로 指稱하게 된것이다(84年間 우리는 對日貿易에서 30億弗赤字니 美國에서 벌어들여 日本에 바친 셈이 된다).

美國은 自由貿易을 本領으로 하는 나라이니 만치 保護主義로 가서는 안되지만은 各議員의 選舉區에서 야단들이니 議會에 反映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保護貿易으로 方向을 돌리면 結局 貿易戰爭으로 치닫게 되니 레이건大統領도 이런 主張에는 左袒할 수 없겠지마는 우리 商品도 너희가 自由롭게 사주어야 할것이니 너희들의 貿易上 制限措置를 헐고 開放하라고 나오게 된것이다.

一次로 日本의 쇠고기, 오렌지에 對하여 制限

의 벽을 헐고 始作한 것이다. 日本의 肉牛産業과 甘藷産業에 디메지를 加하게 되어 日本의 소 값이 떨어지고 甘藷農事는 致命打를 입게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注目할 것은 日本의 輿論도 차츰 消費者의 利益을 爲하여 輸入의 制限措置를 헐자는 쪽으로 기울게 되고 “市場開放에 무슨 聖域이 있을소냐, 農産物의 自由化를 서둘러야 된다”고 日本財界代表의 人士(稻山經團連會長)마저 農産物의 市場開放으로 우선 美國이나 EC의 不滿을 解消시켜 보자고 나온 點이다. 一部の 매스컴, 學者等을 動員하여 農業側에 壓力을 加한것을 우리는 注意깊게 보지 않을 수 없다. 日本이나 우리나라 좁은 國土 위에 零細한 營農이다.

一 例로 稻作을 보자 一戶當 面積에 있어서 美國은 150ha 日本은 0.8ha 韓國은 0.65ha이고 稻作戶數는 美國이 1萬, 日本이 260萬戶 韓國 160萬戶, 10a當 投入 勞動時間은 美國의 2時間에 對하여 日本이 約50時間 韓國은 64時間이니 都是 競爭이 될수 없다. 美國의 玄米 60kg當 生産費가 15,200원인데 比하여 日本과 우리는 77,200원(5ha以上은 60,000원)이니 4배가 넘게 된다. 數年前에 우리나라에서도 比較優位論을 行政當局에서나 學者中에서 말하게 되었었고 비싼 農産物을 굳이 우리가 生産할 것 없이 各國서 사들여 오자고 하여 이에 根據하여 소도 사들이고 이런저런 理由로 分유도 사들였다. 一應 근사한 말로 들리지만 첫째, 外國것을 사서 먹을 돈을 輸出로서 카바할 수 있느냐, 둘째 우리가 지닌 資源 農土는 收支가 안맞는다고 無置로 방출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나는 한걸음 더 나아가 農業이 갖는 國家經濟의 意味와 農村人口가 우리民族 存立에 있어서 點하는 價値를 생각하여 우리 農業은 工業과 相互補完의 關係에서 健在해야 하고 우리 農民은 배달民族의 核心으로서 存續해야 될것을 切感한다. 紅塵萬丈의 都市에서 또는 自然을 등

진 工場속에서 分業化되어가는 人間이 大部分을 차지하는 民族이 된다면 健康하게 存續할 수는 없다. 맑은 空氣속에서 햇볕을 쬐고 흙냄새를 달게 맡는 農民이 中核이 되어 있어야 우리 民族全體가 健康할 것이다. 적어도 3割以上은 自然相對의 農漁民으로서 存立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한편 食糧武器化를 云云하는 昨今의 世態로서 보던지 最近의 이티오피아 飢餓를 보더라도 食糧의 어느 線까지는 우리가 確保해야 할것으로 確信한다. 그런 意味에서 볼때 比較優位論은 農業에 關한 限 삼가야 할 말이다. 또 事實上 農産物에 關한 限 保護받지 않은 나라는 地球上에 하나도 없다고 한다. 도리켜 우리 經濟全般을 볼때 年間 7.8%의 高成長을 繼續하여 왔던 우리 經濟는 外地에 나가있던 建設不況과 海運造船等 深刻한 不況으로 景氣後退를 보이더니 最近들어 對美輸出의 鈍化로 어려운 고비에 이른것은 事實이다. 家電製品을 덩핑한다고 트집잡더니 요즘와서는 신발, 심지어 몇푼 안되는 앨범까지 트집잡고 있으며 纖維製品全般에 對하여도 밀어낼려고 야단이다. 共產圈과 對峙 第一線을 맡고 軍事費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 弱少國인 우리로선 매우 서운한 얘기다. 우리의 經濟成長率은 2.7%(85年 第 2.4半期)로 떨어지고 對美輸出 伸長率은 5.3%로 낮아지고 말았다. 多幸히 政府의 換率調整, 3兆원의 特融財閥에 對한 規制緩和等 輸出, 設備投資換起을 위한 金融, 財政措置와 더불어 80년대 이후 힘써온 중화학공업 육성책이 점차 結實段階에 오르고있어 퇴세를 만회하려고 안간힘을 쓰고는 있다. 自動車工業만은 快調를 이루어 今年 상반기에 있어 生産대수에 있어 작년 동기에 비하여 31%증인 17만대, 輸出에 있어서 139%증인 5만대로 되었다. 現代, 大宇 같은 재벌에서 生産된 自動車가 美國, 캐나다로 나가게 된것이다. 우리는 일찍 日本의 도요다, 닛산 自動車가 美國에 逆輸入됨으로써 日本 農産品에 대한 保護가 헐리고 있음을 보아왔다.

우리의 工產品이 어려운 輸出을 하고 있는것은 國家經濟를 위하여 慶賀할 일이나 그대신 우리에게도 美國의 農產品을 자유롭게 사주어야 한다고 나올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美國이나 EC 또는 호주, 뉴질랜드는 남아나는 쇠고기와 분유를 팔아 먹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구실을 꾸미려고 항상 노리고 있다.

日本の 經濟團體連合會長의 말처럼 우리나라의 經濟人連合會長의 입에서부터 “농산물이라고 聖域은 아니다”라고 나올지 모르는 일이며, 學者나 消費者代表로서도 비교우위를 들고나올지 모르는 일이다. 商品의 貫通力은 彈丸과 같은것, 항상 뚫고 들어오려고 호시탐탐하고 있는 것이다. 소값 波動으로 朝野가 들끓고 있을 무렵임에도 不拘하고 I·M·F와 I·B·R·D 총회에 참석하는 外國손님 접대란 이유로 쇠고기 49톤이 들어온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86, '88올림픽으로 수만의 외국인이 들어닥칠때에는 또 쇠고기 몇톤이 필요할 것인가, 한우고기라고 울사람이 안을 것인가, 食事を 못 할 것인가, 都是 理解를 할수없는 일이지마는 저렴한 外國商品은 항상 뚫고 들어오려는 運動法則으로 되어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全體經濟의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 酪農은 진통을 겪게되었으며, 現狀에서의 脫皮내지 전환을 면할수 없게된 것이다. 이러한 情勢속에서 우리 酪農人들은 어떻게해야 할 것인가, 첫째 適正規模 以上の 經營이 되어야 한다. 複合營農이라고 하여 젖소를 2~3두 飼養한다는 것은 젖소관리의 어려움으로 보아 적당치 못하다. 副業으로서 하더라도 적어도 10두 以上이 되어야 하고 혼자서 안되면 部落單位로 糾合을 해서라도 적정규모선으로 經營해야만 겨우 收支가 맞게될 것이다. 專業農家라면 사료포 또는 초지 합하여 5만평 정도를 갖고 적어도 40~50두의 젖소를 갖추어야 될줄안다. 10年前 日本의 1호당 平均頭數 11頭가 '85年엔 25두가 되어있

음을 우리는 參考로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의 酪農이 빨리 機械化 되어야 한다. 착유에서 부터 糞尿처리, 給飼로 平常時에는 家族勞動으로 일을 해내야하고 엔시레지 播種때에는 部落이나 同業者들의 共動作業 또는 相互 품앗이로 해야한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機械값이 너무 비싸지마는 트랙타를 위시한 採種, 제조, 중경, 수확의 機械器具를 갖추어야만 점차 심각해지는 求人難에 대비하게 될것이다. 앞으로 機械裝備의 리-스(대여)制度도 이용토록 해야겠다. 低能力牛는 果敢히 淘汰하여 優良牛를 確保토록 不斷의 努力을 경주해야겠다. 美國은 이미 年間 平均 7,000kg을 넘어 1만kg을 바라고 있으며 日本의 平均 5,800kg에 比하여 우리는 겨우 4,500kg線에 있음을 알고 高能力으로 이끌어 올려야 할것이다.

우리가 當局에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安定이다. 市場經濟의 흐름대로라면 當局을 원망도 않겠지만 무작정하고 소를 導入하고 쇠고기, 분유를 輸入하는데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되었다. 管理의 어려움을 생각지도 않고, 複合營農에 젖소를 짜넣어 급격히 소두수를 늘린 것도 不安定 處事다.

當局이 해야할 일은 生産費의 절감과 酪農體質의 強化지, 두수의 增加나 乳量의 증가를 필요로한 단계는 지난 것이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한것은 아니겠지만 제발 攪亂的인것, 不安定要素가 되는것은 삼가 주었으면 한다. 지금의 集乳制度도 개선되어야 할것이다. 사가는 측의 一方的 결정으로 量과 質이 判定되는 불합리는 시정되어야 할것이며, 集乳에 따른 浪費도 줄여야 할 것이다. 省力化를 위하여 酪農의 機械化가 急先務로 되어있으나, 機械값이 너무 비싸다. 저렴한 공급, 低利融資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體質強化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酪農에 찬물을 끼얹지 말고 끌어올려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